

## 제3장

### 계시록 이해: 사단의 모방

계시록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한 또하나의 방법은 먼저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12-14장)을 살펴보는 것이다. 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사단이 그의 동역자들을 동반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대적하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의 주제 또한 이와 매우 흡사하다. 사단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싸우지만, 결국 사단은 처절한 패배로 그 이야기가 끝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곱 상징적 인물 환상을 먼저 살펴봄으로 갖게 되는 유익은 계시록의 전체 내용의 흐름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1. 13장의 내용 고찰

##### 1)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13장은 바다에서 나온 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로 그 내용을 시작한다. 1절은 그 짐승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런데 짐승의 모양을 잘 살펴보면, 바로 앞장에서 소개된 용의 모양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의 모양 또한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12:3)을 쓰고 있는 존재로 묘사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짐승이 용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창조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창1:27).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이 하신 것을 모방하여 자기의 형상을 닮은 한 짐승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골 1:15). 인간의 구원과 관련하여 성부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집행하셨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이러한 하나님을 모방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그의 계획을 집행할 거짓된 아들 짐승을 만들어낸 것이다.

짐승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여 사람들로 그를 믿고 따르게 하신 것을 모방하여, “죽게 된 것 같은” 상태에서 회복됨으로써 온 땅으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들었다(13:3). 이때 용(사단)은 그의 권세를 받은 짐승을 위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13:4)라며 선포해 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한 자가 누구니까”(출15:11)라고 선포한 말을 모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무엇을 의미할까? 2절은 짐승의 모양에 대해 이렇게 묘사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을 사자의 입 같은데”(13:2).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가진 짐승, 어디서 많이 본 짐승이 아닌가? 사실 이 짐승은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본 짐승과 동일한 짐승이었다.

구약시대에 다니엘은 그의 침상에서 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대한 환상이었다(단 7장). 바다에서 짐승 넷이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다. 첫째는 사자와 같았고, 둘째는 곰과

같았고, 세째는 표범과 같았다. 그리고 마지막 짐승은 무섭고 강했으며, 이는 쇠로 되었고, 열 뿔을 가진 모양을 알 수 있는 짐승이었다.

다니엘은 그 환상 속에서 사자의 모양을 한 짐승이 곰의 모양을 한 짐승에게 먹히고, 곰 모양을 한 짐승은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에게, 표범의 모양을 한 짐승은 열 뿔과 철의 이를 가진 짐승에게 먹이는 내용을 본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당시 세계를 점령한 바벨론 이후에 어떠한 나라들이 일어날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된다.

사실 이 환상의 예언대로 세계사는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헬라 다음에는 로마가 세계를 점령하였다. 이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이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 짐승이었음을 말해 준다. 정말 네 짐승은 세상 제국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다니엘 당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한 짐승이었다. 지금도 바벨론 시대에 지어진 한 궁전 앞에 많은 독수리 날개를 한 사자의 형상들이 궁전 앞에 길게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곰은 몸 한 쪽이 들렸는데, 이는 곰의 몸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무거웠다는 뜻이다. 이것은 메데와 파사 두 나라가 동맹하여 바벨론을 공격하여 승리하였고, 그러나 메데보다 강했던 파사가 바벨론에 이어 강대국이 되었다는 점에서 메데와 파사를 몸이 한 쪽 들린 곰으로 비유한 것이다.

페르시아를 이어 헬라가 강대국이 되었는데, 헬라의 알렉산더는 4명의 장군과 함께 페르시아를 무너뜨리면서 전 세계도 순식간에 점령해 버렸다. 이런 점에서 헬라 제국은 새의 날개 넷을 가진 발 빠른 표범으로 비유된 것이다. 그리고 헬라는 로마에 의해 점령되었는데, 로마는 철무기를 가진 나라였고 10명의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였다는 점에서 로마 제국을 철의 이를 가진 열 개의 뿔을 가진 짐승으로 비유하였다.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서 바다는 거의 ‘죄악된 세상’ 또는 ‘악’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한은 미래에 임할 천국을 보면서 거기에는 ‘악이 전혀 없다’는 뜻으로, 천국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계 21:1) 아니했다고 증거하였다. 이런 점에서 짐승이 나온 ‘바다’는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권력’이나 ‘세상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단이 국가 권력이나 위정자들을 그의 대리자로 만든 이유는 교회로 하여금 국가권력이나 세상제도를 신뢰하며 의지하게 만들어 하나님보다 정부나 세상을 더욱 믿고 따르도록 하고, 그것을 따르거나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2. 땅에서 올라온 짐승

성령의 모조품도 있는가? 13:11-18절에 보면, 용처럼 말하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한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13:11). 이는 성령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경배하도록 하며,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계신다(요 16:13). 또한 이 일의 효력을 위해 기사와 이적도 행하신다. 이와 같이 땅에서 나온 짐승도 성령을 모방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믿게 하고 따르며 경배하도록 하고 있으며, 큰 이적도 행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거짓 선지자”를 의미한다(16:13). 거짓 선지자는 속임수와 교리의 혼란을 통하여 교회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한다. 성경의 진리보다는 세상의 풍조와 철학과 경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어 세상적 교훈에 따라 살도록

미혹하기도 한다. 그리고 교회에 침투하여 거짓 교사들을 통해 거짓된 교리와 교훈을 가르쳐 교회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져 살도록 애도 쓰고 있다 (12:15).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비주의와 기복 사상에 빠져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유럽의 교회들은 자유주의 신학에 넘어져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났고, 교인들이 없는 예배당은 술집이나 유흥가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학들의 종교학과는 거의 자유주의 신학자들로 구성되어 수많은 대학 젊은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된 기사와 이적들은 이성적으로 해석하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비친 그림자가 그렇게 표현된 것으로 믿게 하였고 아담의 창조나 노아의 홍수 사건 등은 신화로 믿게 만들었다.

### 3. 부도덕한 음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은 용과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 땅의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짓 선지자는 따르는 사람들의 오른 손이나 이마에 666라는 숫자의 인을 친다. 숫자 6은 ‘완전’ 또는 ‘완성’을 의미하는 숫자 7에 하나가 부족한 사단을 상징한다. 즉 거짓 선지자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 666라는 인을 쳐 그들이 사단에게 속한 자들임을 표시한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인치신 것(7:4)을 모방한 행위임을 알 수 있다.

계시록은 이렇게 인 맞은 자들을 가르켜 ‘부도덕하고 부패한 음녀’(17-18장)라고 부른다. 사단은 음녀를 통해 협박이나 거짓된 교훈 대신 돈과 성과 쾌락이 이 땅의 최고 행복과 안전을 주는 것이라고 속이며, 이것들에

매력을 느끼게 하여 그것을 추구하며 살도록 교회를 유혹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도들로 건강, 장수, 명성, 섹스, 또는 재물을 추구케 하여 그것에 의지하고 섬기며 부도덕하고 부패한 살도록 유혹하기 때문이다.

#### 4. 권면과 도전

계시록은 사단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수반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전쟁에는 두 세력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거나, 반대로 사단을 위하는 세력이다. 이때 계시록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수 24:15)라는 말로 교회를 암시적으로 도전한다.

이런 점에서 교회가 사단의 공격에 대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사단의 사명은 교회를 핍박하여 굴복시키거나, 교회로 그릇된 길로 미혹하거나, 쾌락의 길로 들어가도록 유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회의 사명은 세상에 빛을 증거하며 처녀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먼저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 인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대응하여 바른 교리와 굳건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하며, 음녀의 유혹에 대응하여 세상과 분리하여 쾌락이나 섹스나 물질을 탐하지 않고 살아야 할 것이다.